

구약성경의 지리적 배경 공부

구약성경을 생동감이 있고 입체적으로 공부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근동 지역의 지리 및 지명을 먼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이 지역의 지도 및 지명을 간단한 방법으로 배워봅시다.

1.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근동 지도 그리기

구약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지리적 배경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근동지역입니다.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보면 서쪽으로는 지중해와 이집트까지이고 동쪽으로는 페르시아 만까지입니다. 북쪽으로 하란을 포함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의 상류지역에서 남쪽으로는 홍해까지입니다. 이처럼 구약 세계의 지리적인 배경은 매우 넓고 수많은 지역과 지명, 바다와 강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매우 복잡합니다. 따라서 이 넓은 지역을 포함한 구약 세계의 근동 지도를 선명하게 기억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스토리를 만들어 그리는 것이 유익합니다. 아래 ‘고기잡이 어선’에 대한 이야기를 따라 그려봅시다.

근동 지도 그리기 스토리: 고기잡이 어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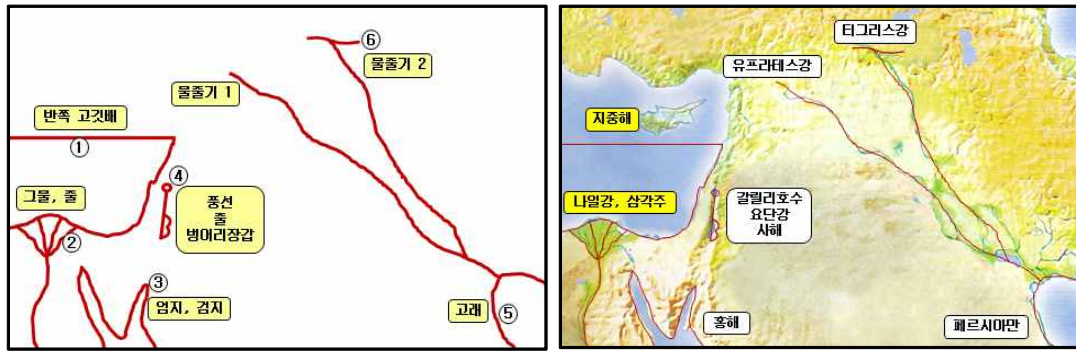
- ① 왼쪽 중간에 고기잡이 어선 앞 부분 반쪽이 보입니다.
- ② 배에서 줄 달린 그물을 던졌는데 그만 놓쳐 뒤집힌 채로 바다에 떨어집니다.
- ③ 어선에서 한 사람이 작은 배를 타고 내려가 오른손 엄지와 검지를 펴서 바로 이 곳에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지시합니다.
- ④ 멀리서 가리키는 손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자 에드블룬 풍선을 띄우고 멀리 날아가지 못하도록 병어리장갑을 줄에 매달입니다.
- ⑤ 오른쪽 지평선에서 평화롭게 노닐던 고래 한 마리가 자신의 영역에 침범한 어선을 향해 머리를 치켜들고 두 물줄기를 뿜어댁니다.

지도 그리기 주의할 점

- ① 반쪽 고깃배는 사이프러스 섬(구브로)의 아래 부분부터입니다.
- ② 줄 달린 그물(투망)은 끈을 놓쳐 완전히 뒤집힌 모양입니다.
- ③ 엄지는 위쪽을 향하게 하고 검지는 약간 길게 배 밑을 향하게 합니다.
- ④ 풍선은 배의 중간부분에 위치하되 줄과 병어리장갑의 길이는 비슷하게 그리며 이 때 엄지 위에 수직으로 그립니다.
- ⑤ 고래 머리에서 내뿜는 두 물줄기는 왼쪽 상단을 향하여 약 45도 방향으로 그립니다.

⑥ 티그리스강을 의미하는 위쪽 물줄기는 상류를 T자 모양을 만들어 유프라테스강과 구별합니다.(실제로 상류에서 갈라진 두 지류가 만나 티그리스강을 이룹니다.)
 * 특히 주의할 점은 배의 밑 부분과 병어리장갑의 하단과 고래의 머리는 거의 수평하게 합니다.

스토리과 실제 지도 비교



- ① 이 이야기에서 왼쪽의 반쪽 고깃배는 지중해를 의미합니다.
- ② 배 아랫부분의 그물과 줄은 나일강삼각주(고센 지역)와 나일강을 의미합니다.
- ③ 엄지와 검지는 홍해를 의미하는데 엄지는 아카바만을, 검지는 수에즈만을 의미합니다.
- ④ 풍선은 갈릴리 호수, 줄은 요단강, 땅콩모양의 병어리장갑은 사해를 각각 의미합니다.
- ⑤ 고래머리는 페르시아만을 의미합니다.
- ⑥ 두 물줄기는 아래는 유프라테스 강, 위는 티그리스 강을 의미합니다.

2. 현재의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



이스라엘 땅은 기원전 63년부터 로마에 의해 지배를 받아오다가 AD 70년 로마의 황제 디도(티투스)는 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은 통곡의 벽을 제외하고 전체가 파괴당하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밖으로 쫓겨나게 된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서러움을 겪다가 1948년 5월 14일 국제연합의 도움으로 독립하여 흩어졌던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돌아와 이스라엘국가를 재건설하지만 가자지구를 중심으로 자치구를 이루고 있는 팔레스타인들과는

물론 주변의 중동 국가들과 계속되는 갈등을 겪어오고 있다.

셈족이며 약속의 아들인 이삭의 후예 이스라엘은 아카바만을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함족인 이집트와 국경을 같이 하고 있고 동쪽으로는 위에서부터 시리아,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와 국경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세 나라는 대부분이 이스마엘의 후예들이며 오늘 날까지 종교적,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네 나라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카바만은 오늘날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 되고 있다.

3. 구약 세계의 주변 열방들(나라들)



구약 세계에서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주변에 위치하여 이스라엘과 계속적으로 적대적 관계를 유지한 나라들은 매우 많은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아람 아람은 이스라엘 구약 시대 지금의 시리아 지방에 있었던 나라로 수도는 현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이었다. 구약성경에 자주 등장하며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침략해 괴롭힌 나라로 알려진다.
아람인들은 기원전 16세기경부터 하란 지방 근처 시리아 북부에서 거주하다가 기원전 11~8세기경에 시리아 북부 지방인 아람에 머무르며 살았는데 부족 중 일부는 메소포타미아의 광대한 지역을 장악하기도 했다.
- ② 암몬 암몬은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고대 민족들 중 하나로 현 요르단 지역에서 활동하며 살았고 이스라엘과도 오랫동안 전쟁을 벌였다. 암몬의 시조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 중 동생이 나온 벤암미이다. 암몬족들은 요단강 동쪽 지역에서 살았고 그들의 중심지는 당시 랍바라 불리는 현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이었다.
- ③ 모압 모압족은 요단강 동쪽 압복강 남쪽에 살았으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큰 딸이 낳은 모압의 후손들이다. 암몬과 같이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힌 종족으로 알려졌다.
에돔(Edom)은 현 이스라엘 남쪽 지방 사해 주변과 현 요르단의 산악 지방에서 살았던 고대 민족으로 구약 성경에서 야곱의 형 에서를 에돔인들의 시조로 본다. 이후 그의 자손들이 살던 지명이 되었고 주로 바위가 많고 험준한 산악 지방이다. 이 에돔 족속들은 연합 이스라엘 왕국의 사울과도 전쟁을 벌였고 그 뒤를 이은 다윗 왕이 여러 이 민족들을 정벌할 때 함께 정벌당하여 8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의 신하가 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계속 유다 왕국과 전쟁을 벌였고 신약 시대에 이르자 에돔은 유다 남쪽을 침공해 이두매 사람들이 되었다. 로마 제국의 명령 하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대왕이 이 에돔의 후예인 이두메인이다.
- ④ 에돔

⑤ 블레셋

블레셋 인들은 토착세력이 아니라 크레타 섬에서 이주해 온 세력으로 추정된다. 블레셋은 유대인의 가나안 진출 이전에 이미 현재의 가자 지역을 중심으로 정착해 있었다고 한다. 통일된 국가가 아닌 5개의 도시(가자,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갓) 사이의 느슨한 연맹체를 이루고 있었다. 이들과 이스라엘은 오늘날 까지 서로 적대적인 갈등 속에 있다.

⑥ 애굽

가나안 남부의 나일강을 중심으로 자리잡은 이집트는 5대문명의 하나인 이집트문명을 일으킨 유서 깊은 민족이고 함족의 후예들이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이 가족들 70여명을 데리고 내려가 400여년 만에 200여만의 큰 이스라엘민족을 이루고 모세 때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스라엘과는 뿔레야 뿔 수 없는 나라이다.

⑦ 미디안

미디안(Midian)의 정확한 경계를 정하기는 어렵지만 아라비아 반도 북서부 아카바만 주변으로 보고 있다. 아브라함은 후처 그두라를 통해 미디안을 낳는데(창25:1 이하). 그가 미디안족의 조상이다. 모세는 애굽 왕 바로를 피해 미디안 땅에서 40년간 머물기도 했다(출2:16-22).

⑧ 앗수르

앗수르(Assyria)는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BC 2000년 경에 형성된 국가이다. 성경에서는 함의 자손 니므롯이 앗수르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한 때부터 등장한다(창10:12) 앗수르는 이스라엘이 국가로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고 주변국들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고 BC 722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도 신 앗수르였다.

⑨ 바벨론

바벨론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일 것이라고 추정한다. 바벨론에 사람이 정착한 시기는 BC 3000년 전이었고 옛 바벨론은 BC1556년 히타이트 족속에게 파괴되었다가 그 후 BC 625년에 갈대아인 나보폴라살이 앗수르를 무너뜨리고 신 바벨론을 다시 건설했다.

4. 가나안 땅의 지정학적 특성



성경의 역사가 펼쳐진 지역인 이스라엘 땅을 가리키는 명칭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팔레스틴, 사이 땅(The Land between- 성지대학 제임스 문슨 교수), 거룩한 가교(sacred bridge- 텔아비브 대학교 앤슨 레이니 교수)...’ 등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 ‘사이 땅’이라는 말과 ‘거룩한 가교’라는 말은 지정학적 특성을 잘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이 땅과 가교라는 말은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이 세 대륙이 서로 교차하는 땅이며 또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리고 지중해 문명이 서로 만나 충돌하는 곳이라는 의미(지정학적 요충지)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집트, 앓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등 세계사에 등장한 굵직굵직한 제국들의 각축장이 되어 한시도 바람 잘 날이 없었던 이곳에 이스라엘을 건설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신(겔5:5)’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처한 운명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대 이스라엘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휘둘리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민들은 자연스럽게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이 땅’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기에 안성맞춤인 용광로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바람 잘 날 없는 ‘사이 땅’에 건설한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는 이처럼 주변의 강대국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습을 온 세상에 보여줌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보여주는 선교)

5. 가나안 땅의 지형 및 지명 익히기

1) 가나안의 강과 호수들



가나안 땅의 지형과 지명을 공부하기 위해서 맨 먼저 강과 호수의 위치를 살펴보고 세밀하게 들어가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 ① 갈릴리 호수 이 호수는 가나안 땅의 북쪽 갈릴리 지역에 위치해 있고 지중해 쪽의 갈멜산과 거의 수평으로 위치하고 있다. 주요한 수원은 북쪽에 위치한 혈몬산이고 남북으로 21km, 동서로 11km이며 둘레는 53Km 되는 담수호로서 생물이 풍성하다.
- ② 요단강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에서 발원하여 사해로 흘러들어가는 대표적인 강으로서 가나안 땅의 동쪽 경계가 된다. 이 강은 해수면보다 낮은 강으로 길이는 약 251km이다. 역사적, 종교적으로 성스러운 강으로 여겨지고 성경에 많이 언급되어 있다. 출애굽기에 따르면 애굽에서 탈출한 유대인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이 강을 건너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가나안을 약속의 땅, 즉 천국으로 생각했고, 이로 인해 이 강을 건

너는 것이 내세로 가는 길, 즉 죽음을 의미하게 되었다.

- ③ 사해 소금 바다, 죽은 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사해는 이스라엘의 동남쪽에 위치해 있다. 호수 면이 해면보다 400m 가량 낮아 지구에서 가장 낮은 수역(水域)을 형성하고 있고 염분이 많아 생물들이 거의 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길이 80km, 너비 18km정도며 병어리장갑의 모양을 하고 있다.
- ④ 압복강 흐르는 강이라는 의미를 가진 압복강은 트렌스 요르단에서 요단강 중간으로 흘러들어가는 강이다. 야곱이 천사로 더불어 씨름하였고 또 형 에서를 만난 곳이기도 하다(창32, 33장).
- ⑤ 야르묵강 사해 동편에서 사해 중간으로 흘러들어가는 강으로서 우기에만 물이 흐르는 와디(간헐천)이다.
- ⑥ 세렛 시내 남동쪽으로 흘러들어가는 와디로서 구약시대 모압과 에돔의 경계가 되었던 지역이다. 출애굽 여정에서 이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 걸렸다고 한다(신 2:13-14)

2) 가나안의 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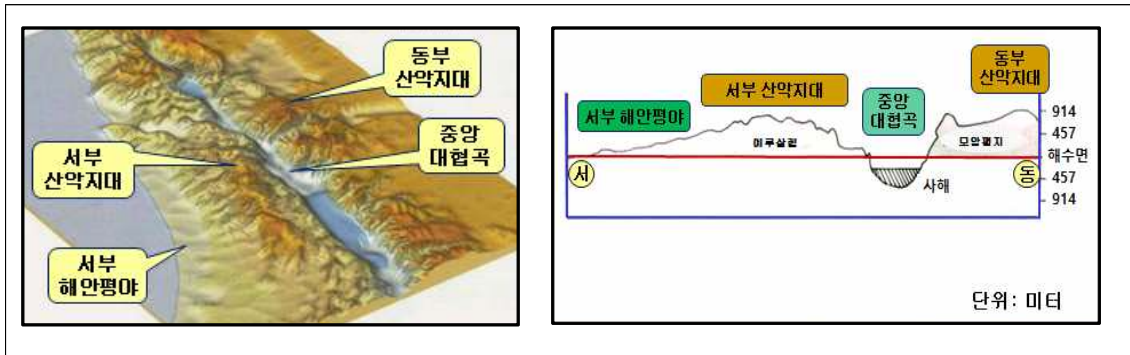


신구약 성경의 주요 사건들의 배경이 되는 성경의 땅(현재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등)의 지형은 그림에서처럼 지중해에서부터 서부 해안평야지대(Coastal Plain), 서부 산악지대(Western Mountains), 중앙 협곡지대(Jordan Rift), 동부 산악지대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 사해가 있는 중앙협곡 지대는 지중해 해수면 보다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갈릴리 호수: 해수면의 -210m, 사해: 해수면의-4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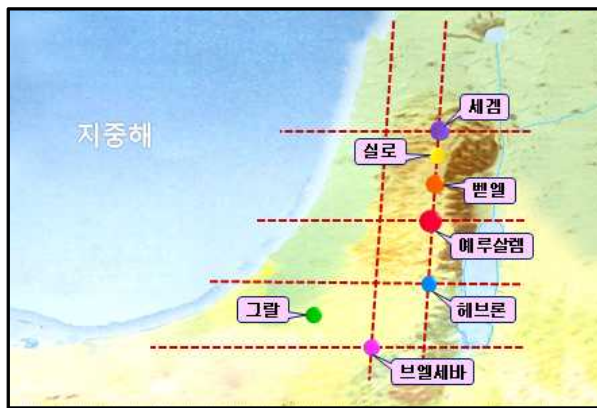
서부 해안지대에는 남쪽에서 블레셋 평야, 샤론 평야, 갈릴리 북쪽 해안은 아셀 평야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주요 성읍들은 서부 산악지대에 주로 건설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것은 아마 자연적 요새로서 적들을 잘 방어할 수 있는 이점 때문일 것입니다. 이 서부 산악지대는 갈릴리 지역 남부에 있는 이스라엘 평야에서부터 남쪽으로 산맥처럼 뻗어 있는데 위쪽에 보면 사마리아 산지, 므낫세 산지, 에브라임 산지 베냐민 산지 유다 산지 네게브 산지로 나뉩니다.

중앙협곡 지대는 북쪽의 단에서 하솔,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가 차례로 위치해 있으며 해수면보다 400m 이상 낮은 것은 세계 유일의 지형적 특징입니다.

이렇게 팔레스타인의 땅은 면적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들마다 매우 판이한 모습을 보이고 더욱이 바다와 사막 사이에 놓여 있어 기후 변동이 심하며 근거리 안에서 극심한 표고편차로 인해 팔레스타인의 지형과 기후는 지역마다 극심한 변화를 보입니다.



3) 가나안의 주요 지명



예로부터 가나안 땅의 주요 성읍은 요새로서 적들로부터 방어하기 쉬운 서부 산악지대에 주로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을 수직으로 3등분하면 서부 산악지역인 요단강에서 1/3지점에 주요 성읍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① 예루살렘 평화의 터전이란 뜻의 예루살렘의 옛 이름은 여부스이며(삿19:10-11) 가나안 사람의 수도였으나 BC 1,000년경 다윗 왕이 점령하였다. 시온산의 이름을 따라 시온성, 다윗왕의 도성인고로 다윗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에 거룩한 성이라 하였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을 극히 존중히 여겼고 위치적으로는 서부 산악 지대에 있으며 사해 상단과 수평을 이루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② 세겜 언덕이란 뜻의 세겜은 예루살렘 북쪽 약 49km 지점 떨어진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삿 9:7)에 위치하고 있다. 예루살렘과 마찬가지로 서부 산악지대에 위치해 있고 압복강과 수평을 이룬다. 이 곳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처음으로 멈춘 곳(창 12:6)이기도 하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귀환하던 중 세겜 성 앞에서 장막을 쳤으며 후에 도피성 중의 하나였다(수 17:7).

 예루살렘과 같이 서부 산악 지대에 위치해 있고 남쪽 30km 지점에 있는 고도(사해 중간 부분과 수평이 되는 곳)이며 족장시대에 족장들의 주된 거점이기도 하다. 옛 이름은 기랴트 아르바이며 후에 도피성 중의 하나였다.

③ 헤브론

- ④ 브엘세바 언약의 우물이란 뜻을 가진 브엘세바는 팔레스틴 남쪽 경계를 가리킬 때 자주 등장하며 헤브론 서남 55km 지점에 있다. 하갈, 이삭, 야곱,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룩한 곳(창21:17, 46:2, 왕상19:5)이기도 하다.
- ⑤ 실로 실로는 세겜과 예루살렘 사이의 산악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옛 이름은 실로, 실로아 또는 셀라이다(사8:6, 느3:15).
- ⑥ 벤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벤엘은 예루살렘과 실로 사이에 위치해 있고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성경에 예루살렘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며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 하란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역사를 꿈에 본 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지었다(창28:19). 또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귀환하여 제단을 쌓고 엘벤엘이라 하고 돌기둥을 세웠다(창 35:1-7).
- ⑦ 그랄 가나안의 남서쪽에 위치한 성읍으로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기근을 피하여 머물렀다(창26:1-6).

4) 가나안 땅의 대로들

가나안 땅의 구약 시대 주요 교통망은 크게 3가지입니다. 그것은 다메섹에서 이집트까지 남북으로 뻗어 있는 '해변 길(Via Maris)'과 서부 산악지대를 따라 있는 '족장의 길',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다메섹에서부터 아카바만까지, 더 나아가 애굽까지 연결되어 있는 '왕의 대로'가 그것입니다.

① 왕의 대로 왕의 대로라고 부르는 길 역시 고대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도로였다. 왕의 대로란 말은 민수기 20:17절과 민수기 21:22절에 기록된 표현으로 출애굽 이스라엘백성들이 사해 동쪽으로 북상하면서 지난 길이다. 이 이름은 왕이 다니는 특별한 길이라기보다는 '주된 길'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이 길이 다른 길에 비해 빈번하게 사용된 주도로라는 말이다. 왕의 대로는 지리적으로 다메섹을 기점으로 해서 동부 산악지대의 동쪽 가장자리를 따라 남으로 달려 아카바만에 이르는 국제 간선도로로서 대상들이 많이 이용한 국제 교역로라고 할 수 있다.

② 족장의 길	<p>족장들의 길 역시 고대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도로였다. 족장들의 길은 서부 산악지대에 있는 평탄한 산등성을 남북으로 달리는 길이다. 이 길은 북쪽 세겜에서 실로, 미스바, 라마, 기브아, 예루살렘, 베들레헬, 헤브론을 지나 브엘세바에 이른다. 이 길은 성경에서 ‘산지 길’로도 부르고 있다. 이 길은 성경에 나오는 족장들이 주로 사용한 도로였으므로 ‘족장의 길’이라고 불린다.</p>
③ 해변 길	<p>고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는 지중해 해변을 따라 있는 해변 길이었습니다. 해변 길은 주전 2천 년 대부터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군사,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로였다. 주전 15세기에서 13세기 동안에 있었던 이집트 왕들의 가나안 원정은 모두 이 도로를 사용했다. 또한 주전 8세기경부터 있었던 앗수르 제국의 왕들이 가나안과 이집트를 정복할 때에도 이 해변 길을 사용했다.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으로 이동한 길(창11:30), 요셉을 사서 애굽에 판 길르앗 상인들이 이용한 길(창37:5), 그리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사용했던 ‘블레셋 땅의 길’(해변 길이 이집트와 연결되는 부분)이 모두 해변 길과 관계가 있습니다(출 13:17).</p>

6. 가나안 땅의 기후

가나안 땅은 면적은 좁지만 매우 복잡한 기후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가나안 땅은 기후 조건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 땅의 지형학적 특징을 한 마디로 ‘사이 땅’ 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 땅의 기후도 한 마디로 말한다면 ‘사막과 바다 사이 기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기후는 두 개의 다른 힘, 즉 바다와 사막으로 인한 기압의 이동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북위 30도와 33도 사이에 위치한 아열대 지방이지만 지중해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중해성 기후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절은 우리처럼 4계절로 구분되지 않고 그 대신 이 지역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와 비가 많이 오는 우기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건기는 비가 오지 않는 4월에서부터 9월에 이르는 6개월간을 말하고, 우기는 비가 많이 오는 10월에서부터 다음해 3월까지의 6개월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비가 가장 많이 오는 1월부터 2월까지를 겨울이라고 부르고, 가장 뜨거운 7월부터 9월까지를 여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온대 지방의 4계절 구분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 기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밤과 낮의 기온 차가 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낮의 기온은 섭씨 4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스웨터를 입어도 추위를 느낄 만큼 기온이 낮아집니다.

그럼 이제 기후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봅시다.

<p>① 건기의 기후</p>	<p>건기는 4월에서 9월까지의 6개월간의 기간을 말하는데 비록 4월초에 잠깐 늦은 비와 9월 중순 이후에 약간의 이른 비가 오지만 5월부터 9월 초순까지는 전혀 비가 내리지 않는다. 여름인 7-9월에는 대서양에 발달한 고기압으로 인해 팔레스타인에는 좀처럼 비가 내리지 않는다. 3월 말이 되면 "시로코"라고 부르는 뜨거운 사막 바람이 불어오는데 일반적으로 4-5월과 9-10월 사이에 불어온다. 이 바람이 불면 모든 것들이 곧 시들어 버리고 꽃은 사라지며 들판이 누르고 황폐하게 변하게 된다.</p>
<p>② 우기의 기후</p>	<p>건기가 끝나면 우기가 시작되는데 우기는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의 6개월간을 말한다. 팔레스타인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속하기 때문에 강우량이 그 주변 지역보다는 양호하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은 사막으로 된 건조 지대에 속하여 연평균 강우량은 약 600mm정도이지만 편차가 심하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대부분 구릉지대로 되어 있고, 그 것도 수분 흡수가 잘되는 석회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보존하는 힘이 매우 약하다. 그러므로 팔레스타인에는 극심한 가뭄이 몇 년씩 계속되는 수가 많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러한 가뭄 사건이 곳곳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창26:11; 렘14:2-6).</p>
<p>③ 이른 비</p>	<p>성경에는 우기의 초인 9월 중순부터 10월 사이에 내리는 비를 가리켜 '이른 비'라고 부른다. 성경을 보면(신11:14, 시84:6 등) 이른 비에 대한 언급이 많은데 농부들은 이 비가 내려야만 씨를 뿌릴 수 있다. 따라서 농사에 매우 중요한 비라고 할 수 있다.</p>
<p>③ 겨울 비</p>	<p>겨울비는 12월 하순부터 2월까지 내리는 비로서, 이 기간은 장마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에는 종종 소나기를 동반하는 폭풍우가 내리기도 하고, 와디에는 시냇물이 흐르게 된다. 겨울비는 땅을 충분히 적시어 초목이 잘 성장하게 만들어 주는데 이때에 사람들은 빗물을 웅덩이와 저수지에 채워 보관한다. 이처럼 겨울에 내리는 비는 장마 비인 동시에 복된 비입니다(겔34:26).</p>
<p>④ 늦은 비</p>	<p>'늦은 비'는 우기의 말인 3월부터 4월에 내리는 비를 일컫는다. 이 비는 농작물이 풍성한 결실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중요한 비다(신11:4). 이러한 늦은 비가 제 때에 오지 않으면 곡식이 자라지 못해서 큰 흉년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농사를 짓는 일에 매우 유용하며 늦은 비를 봄비라고도 불렀다.</p>